"기아차 취직시켜 주겠다" 20여명에 돈 챙겨 잠적

10억원대 '취업 사기' 수사

현직 경찰 개입 의혹

최악의 실업난 속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취업을 미끼로 한 대규모 취업 사기 사건이 광주에서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현재까지 피해자만 20여명에 이르고, 피해 액수도 10억원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대규모 취업사기 사건에는 현직 경찰관이 끼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3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시내 H다방 주인 선모(36)씨가 피해자 20여명에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1인당 3천만~4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다. 선씨는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에 친구인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K(36) 경장과 함께 와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L(33)씨는 지난 2006년 광주 모 식당에서 K 경장의 소개로 선씨를 함께 만났으며, 이날 선씨에게 기아자동차 채용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선씨는 이 자리에서 "집안 어른이 현대상선에서 근무 중인데, 현금 3천만원만 있으면 바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L씨에게 제의했고, L씨는 다음날 현금 3천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선씨는 이후 회사 구조조정, 노조 반대, 재무 문제 등을 문제삼아 L씨의 취업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피해자들은 "선씨가 수년 전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문제로 기아차 신입사원은 이제 현대그룹에서 뽑는다"며 "우선 기아차 화성공장으로 입사시킨 뒤 2~3개월 내 광주공장으로 발령내겠다고 자신들을 속여 왔다"고 주장했다.

선씨는 또 일부 피해자들에게 기아차 광주공장 출근에 앞서 미팅을 가진다며 지난 10일 오전 8시30분 옛 송원전문대학 정문으로 모이게 하는 등 치밀하게 피해자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이날 현장에서 자신들을 인솔하기로 한 기아차 광주공장 직원이 나오지 않자 뒤늦게 취업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고 선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애초 이번 사건은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맡았지만, 관할이 광주여서 이날 광주경찰청으로 사이관했다.

경찰은 우선 잠적한 용의자에 대한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입금한 계좌 분석·통화내역 조회 등의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권일·이종행기자 cki@kwangju.co.kr

검찰-4개 대학 협약 광주지검과 광주지역 4개 대학은 12일 전남대 용봉홀 1층 세미나 홀에서 '법률 연구 교류 협약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장병완 호남대 총장, 김대원 조선대 부총장, 황희철 광주지검 검사장, 강정채 전남대 총장, 김혁종 광주대 총장. /최현배기자 choi@

학교폭력 자진 신고기간에…

장애 학생 폭행·고막 파열 등 사고 잇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경찰청 등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자진 신고기간'(6월2일~8월31일)이 무색하게 광주·전남지역 학교에서 잇따라 폭력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모 고교는 지난 9일 교내 자치위원회를 열고 장애(2급) 동급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3학년 4명을 각각 전학 및 자퇴권고, 교내봉사 명령 등에 처했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 2년간 피해 학생에게 폭력, 금품 갈취, 모욕 등을 해온 것으로 시교육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학교 측은 지난 4일 이들의 교내 집단 폭력행사 장면을 목격한 다른 학생의 신고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 학생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또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무안 모 고교 3학년 학생 8명이 2학년 학생 7명에게 '후배 길들이기'를 한다며 폭력을 휘둘러, 2학년생 1명의 고막이 파열되고, 다른 한 명은 타박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후 가해 학생들에게 학내봉사 명령 등 처벌을 내렸지만,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에 보고하는 절차를 뒤늦게야 취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폭력 자진 신고기간'이라는 점을 무색케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전남 학생회관 9월 여수에 개관

전남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의 공간이 될 학생교육문화회관(학생회관)이 오는 9월 문을 연다. 전남도교육청은 12일 "여수시 화장동 선사유적공원 내 3만여㎡에 전체면적 9천여㎡ 규모의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오는 9월 개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170억원이 투입된 학생회관 1층에는 다목적 체육관을 비롯해 대·소강당, 전시실, 아동열람실, 강의실 등이 들어서며 2·3층에는 향토자료실, 일반 열람실, 디지털 자료실, 어학실 등이 마련됐다.

지하에는 체력단련장과 레크리에이션, 국악, 무용, 음악감상실과 학생과 일반인들에게 개방될 수영장도 들어선다. 도 교육청은 개관을 앞두고 조경과 편의시설 등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관련 운영조례 등도 제정했다.

도 교육청은 학생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및 평생 교육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학생 학력증진, 다양한 정보제공 등 개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

'짝퉁' 다시다 수백만명분 유통

성분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짝퉁' 쇠고기 다시다 수백만명분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2일 유명 조미료 회사의 제품과 똑같은 포장에 저질 다시다를 담아 판매한 혐의로 배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배씨를 도와 짝퉁 다시다를 제조하고 유통을 알선한 혐의로 윤모(38)씨와 권모(55)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배씨 등은 농가창고에 공장을 차려두고 올들어 5월 1일부터 최근까지 유명업체의 다시다 1kg들이와 똑같이 만든 봉지에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분말을 넣는 수법으로 짝퉁 다시다 1만8천개를 만들어 그 가운데 1만3천개(시가 1억2천500만원)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고속도 주유소 경유값

전국 평균보다 싸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는 호남지역 고속도로 주유소 20곳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 곳 경유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남지역 고속도로 주유소의 경유 판매가격(6월 첫째주 기준)은 ℓ당 평균 1천905원으로, 같은 기간 한국석유공사가 집계한 전국 평균(1천917원)에 비해 12원에 저렴했다. 다만 휘발유는 ℓ당 평균 1천910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3원 비쌌다. /안현주기자 ahj@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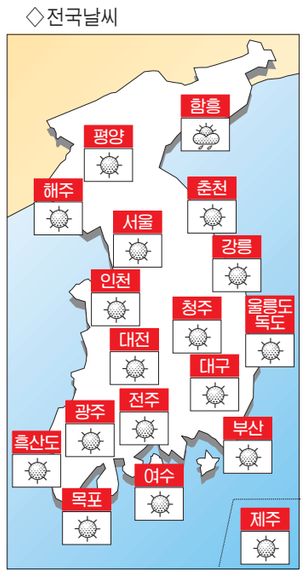
해맑은 하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맑겠다.

6월 13일 (음 5월 10일)

◇전국날씨

광 주	맑음	17~31℃
목 포	맑음	17~26℃
여 수	맑음	19~26℃
완 도	맑음	17~28℃
구 례	맑음	13~32℃
해 남	맑음	16~29℃
장 흥	맑음	15~29℃
고 흥	맑음	14~29℃
순 천	맑음	13~31℃
영 광	맑음	16~29℃
진 도	맑음	16~29℃
전 주	맑음	16~31℃
남 원	맑음	14~31℃
흑산도	구름 조금	16~20℃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0.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목 포 밀물 09:49 22:50 썰물 03:12 15:32
여 수 밀물 04:46 17:58 썰물 11:08 23:57

▲해뜸 05:17 ▲해짐 19:46 ▲달뜸 14:59 ▲달짐 01:2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19(목)
날 씨						
최저/최고	19/29	19/28	19/29	19/29	20/28	19/25

전남대생 20% "1학년때부터 취업 준비"

92% "4학년 이전 준비"

대학 4학년 때 취업준비하는 것은 옛말이 돼버렸다.

전남대 학생 10명 중 9명은 4학년이 되기 전부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대 취업지원과가 지난 2월15일부터 3월31일까지 재학생 1만618명, 신입생 3천7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학생 답변자 1천230명의 91.6%인 9천366명이 1~3학년 때 취업준비를 시작한다고 답변했다.

4학년 이후 취업준비에 나선다고 답한 학생은 5.1%(524명)에 불과했으며, 1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학생들도 20.4%(2천92명)이나 됐다.

신입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답변자 3천759명의 82.3%인 3천94명이 1~3학년 때 취업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며, 4학년 이후에 준비할 계획인 학생은 3.6%(137명)에 불과했다. 1학년 때 취업준비에 돌입하겠다고 답변한 학생은 26.4%(992명)를 차지했다.

재학생의 졸업 후 취업희망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대기업·국영기업체'가 27.3%(2천781명)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기관·공무원'(26.2%·2천470명), '전문직-의사·교사'(21.3%·2천171명) 순이었다. /정상필기자 camus@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www.kimyoung.co.kr
대학편입 김영에 맡겨라!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전문대편입/ 미술대편입
매일 공개설명회 10시/ 2시/ 4시/ 6시
김영 대학편입학원

Movie Gift
영화관람권을 드립니다
광고접수안내